

## 북미를 중심으로 선진국 자금 집중 지속

김영빈 | 책임연구원(3705-6223)

신술위 | 책임연구원(3705-6246)

### 주간 글로벌 자금흐름('24.11.21 (목) ~ 11.27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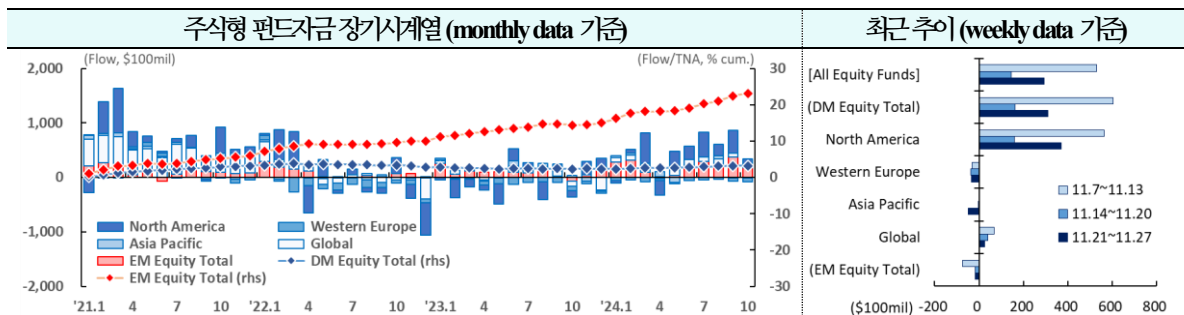
#### 주식 선진국 유입 지속, 신흥국 유출 지속

##### ○ [선진국] 북미를 중심으로 유입 지속(+\$606억 → +\$162억 → +\$312억)

- 북미 주식펀드 유입 확대(+\$565억 → +\$161억 → +\$370억): 금리 변동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연말 계절적 요인이 주식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Barclays). 트럼프 2.0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우선주의 영향으로 '25년 EPS는 올해 대비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BofA)
- 서유럽 주식펀드 유출 지속(-\$31억 → -\$36억 → -\$36억): 성장세 둔화, 기업 실적 하향 조정, 어려운 정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비중 축소 유지가 한동안 필요하다는 분석(JPM). 한편, 미국 대비 증시 부진으로 인해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무역 협상이나 중국 부양책과 관련해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경우 상승 서프라이즈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매력적인 분산투자처로 평가(Citi)

##### ○ [신흥국] 유출 지속(-\$74억 → -\$18억 → -\$18억)

- 디스인플레 진전으로 신흥국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통화 완화 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관세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주요 신흥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GS).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포지션 유지 필요(JPM)



자료: EPFR, 국제금융센터

#### ※ [참고: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투자]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유출 지속

(억달러)	2022	2023	2024	11.7~11.13	11.14~11.20	11.21~11.27	전주대비	4주누적	8주누적
한국	-89.3	102.3	49.6	-9.1	-6.4	-5.3	1.1	-26.9	-53.4
인도	-170.2	214.3	-9.5	-9.6	-6.4	17.5	24.0	-15.5	-113.6
대만	-440.1	69.3	-180.9	-24.5	-15.2	-24.5	-9.3	-72.2	-58.8
인도네시아	42.7	42.7	16.4	-4.6	-2.2	-1.7	0.5	-9.1	-16.0
필리핀	-12.5	-12.5	-2.6	-1.5	-0.9	-0.3	0.6	-3.3	-3.0
태국	59.6	59.6	-37.6	-1.0	-1.2	-0.3	0.9	-3.5	-9.7
베트남	10.9	10.9	-35.0	-1.3	-2.6	-0.1	2.5	-5.5	-9.2
말레이시아	11.0	11.0	-0.2	-1.5	-0.2	-2.5	-2.3	-4.1	-7.7
합계	-587.9	497.6	-199.9	-53.0	-35.1	-17.2	17.9	-140.2	-271.4

주: 1) 중국의 경우 '24.8.19일부로 외국인 주식투자흐름 관련 일별 데이터 제공 중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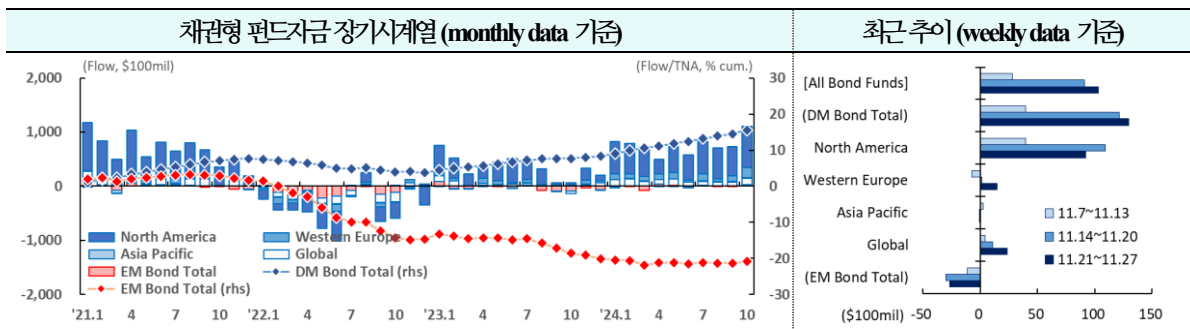
**채권** 선진국 유입 지속, 신흥국 유출 지속

○ [선진국] 북미를 중심으로 유입 지속(+\$40억 → +\$121억 → +\$130억)

- 북미 채권펀드 유입 지속(+\$40억 → +\$109억 → +\$92억): 무역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가 일시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할 것(Barclays). 11월 FOMC에서 역레포 금리를 5bp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시장 예상과 달리 연준이 QT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며, QT 종료 시점은 '25.2분기로 예상(Citi)
- 서유럽 채권펀드 유입 확대(-\$7억 → +\$2억 → +\$15억): 12월에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5.7월 정책 금리가 1.75%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 만약 유로존 성장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12월에 50bp를 인하할 가능성도 존재(GS)

○ [신흥국] 유출 지속(\$11억 → -\$30억 → -\$27억)

- 한은의 예상 밖 연속 금리 인하는 성장 하방 압력 및 추가 디플레이션 위험을 강조한 비둘기파적 변화로 평가되며, 내년 여름까지 총 75bp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GS). 멕시코의 경우, 중앙은행 총재가 정책금리 추가 조정을 시사한 만큼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관세 영향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가속화될지는 미지수(BNP)



자료: EPFR, 국제금융센터

**주간 신흥국 CDS 및 환율 동향('24.11.22 (금) ~ 11.28 (목))**

**CDS** 신용위험은 중남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증가(주간 평균 등락폭: +5bp → -2bp → +2bp)

**환율** 통화가치는 브라질,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하락(주간 평균 절상률: -2.2% → +0.2% → -0.5%)

구분	국가	CDS 프리미엄(bp)					환율(對 USD, 전주대비 절상률(%))				
		9월말	10월말	11.21일	11.28일	전주대비	9월말	10월말	11.21일	11.28일	전주대비
주요 취약국	튀르키예	269	268	260	257	-2	34.20	34.26	34.49	34.65	-0.5
	남아공	178	192	187	186	-0	17.27	17.60	18.11	18.11	-0.0
	콜롬비아	201	219	197	200	2	4,207	4,424	4,392	4,402	-0.2
	칠레	54	59	54	56	2	898.70	962.33	974.08	977.43	-0.3
잠재 취약국	브라질	153	159	155	162	7	5,450	5,788	5,814	6,011	-3.3
	멕시코	121	128	125	128	3	19.69	20.04	20.42	20.43	-0.0
	인도	49	48	47	48	0	83.80	84.08	84.50	84.50	0.0
	인도네시아	69	70	74	75	2	15,140	15,697	15,925	15,870	0.3
						2					-0.5

자료: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제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3 혹은 ybkim@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